



문서번호 : 18-07-사무-0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담당: 장보람 변호사, 010-9337-3607)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전송일자 : 2018. 7. 18.(화)

전송매수 : 총 2매

#### [공동 보도자료]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for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대한민국 17-1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부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노동 관련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협약 이행상황 및 인종차별 실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여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인종차별 보고대회'를 2018년 7월 20일(금), 21일(토) 양일간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보고대회는 양일간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로 나누어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누가(미디어,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민간자본 등) 인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려고 합니다.

5.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께서는 위의 연락처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반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취재는 불허하며 개인의 취재 및 촬영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이번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12월 스위스 제네바 한국 심의 현지 로비활동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차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에 대한 환대를 실현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첨부자료 : 시민사회 사무국 활동

2018. 7. 18.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